

企劃論文

#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작은도서관

## 용인시의 사례

양영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부교수, 인류학 전공  
ykyang@aks.ac.kr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역사
- IV. 용인시 작은도서관과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
- V. 맺음말

이 연구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0-330-B00216).

## I. 머리말

일반적으로 '공동체'라는 용어에 의해 상상되는 것은 전통시대의 농촌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작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 거주하는 매우 동질적인 사람들이 복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통의 문화와 집단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비해 현대의 대도시는 대규모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도시의 구성단위들은 매우 개인화 또는 다원화되어 있으며, 또한 극히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러한 현대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지만, 대내적·대외적으로 매우 복잡한 관계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세계적 규모로 작동하는 거대한 체계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외적 요인들의 영향이 강력해지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도시 공동체의 구축이 부각되고 있다. 즉,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소외감에 맞닥뜨린 도시민들은 공동체 구축을 통한 집단적 행위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적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소외감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현대 도시민들이 맞닥뜨린 문제들은 동시에 역설적으로 도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 자극적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시의 조밀한 인구밀도는 대면적 접촉의 빈도를 증대시킴으로써 공동체 구성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근대화·도시화와 더불어 전근대사회의 공동체 혹은 공동체적 관계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변화의 양상은 사회마다 다르고, 변화의 양상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사회는 문화적으로 공동체적 혹은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했으며, 현대에도 여러 측면에서 이런 전통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지역공동체의 존재는 서구나 이웃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미약하다.<sup>1)</sup> 이것은 한국 도시 형성의 역사적 과정이 식민지배, 한국전쟁,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 등 짧은 기간 동안 겪은 큰 분수령들로 점철되어

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의 도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근린주구(neighborhood)를 인식하고 있을 따름이며, 자신이 이웃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공간으로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sup>2)</sup> 도시민들이 중요시하는 공간적 단위는 도시 전체일 수도 있고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의 도시민들이 살아가는 근린주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동네'라고 부를 수 있는,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 일상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를 논의할 때 그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접촉빈도와 인간관계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도시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의 성격,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공동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 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이 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으며 또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용인시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사례로 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용인시는 신도시는 아니지만 근래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용인시는 2010년에 인구가 약 90만 명이고 세대 수는 약 32만인데, 이는 2000년에 비해 인구는 약 2.25배, 세대 수는 약 2.4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에 주력하여 시 전체 인구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http://www.estat.go.kr/>). 원자화된 도시 거주민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아파트 거주가 지배적 거주 형태이고, 인구이동에 의한 급격한 인구성장을 경험한 용인시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용인시의 조건은 현대 한국 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 가능성 타진을

---

1) 이시제 외, 『일본의 도시사회』(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Bestor, Theodore, *Neighborhood Tokyo*(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2) 황익주, 「골목길과 광장 및 공원: 도시에서의 '우리 동네' 형성에 관한 인류학적 에세이」, 『건축』 49권 1호(2005), 69-76쪽; 황익주, 「도시의 공간성과 지역공동체」, 『한국가족 관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7), 1-21쪽.

위해서 매우 좋은 사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II. 선행연구 검토

도시 내 사회관계, 이웃관계, 도시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 등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도시 거주민의 사회적 유대,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연결망 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sup>3)</sup> 이 연구들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계망을 가족·친족, 동창, 동향, 이웃 등으로 나누어 각 관계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대개 가족과 친족 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중요하며,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웃관계는 대개 주부들이 중심이 되며, 경조사를 서로 챙긴다든지, 가재도구나 소액의 돈을 빌리는 등의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주거지역과 공업 및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의 경우<sup>4)</sup>,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이웃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이웃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다.<sup>5)</sup> 각 연구들의 연구 시기나 연구 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현저하게 드러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상민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sup>6)</sup> 이 연구의 대상지역은 대구 도심권역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인데, 매우 높은

3) 예를 들면, 강성희,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과 역할」, 『한국보육학회지』 8권 2호(2008), 11-30쪽; 김정오, 「한국 도시사회의 공동체적 관계망과 유대: 부산의 중하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9); 정재은, 「아파트 주거 공동체를 통해서 본 상층계급의 사회자본 축적과정: 방배동 L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4) 김정오, 위의 논문; 박상민, 「노원2가동 주민들의 이웃 연결망과 이웃관계」, 『地理學論究』 19호(1999), 116-131쪽.

5) 예를 들면, 김종인·신용재, 「아파트 주부의 이웃관계: 생활수준에 의한 비교를 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論文集』 5권 1호(1989), 15-19쪽; 임석희·이철우·전형수, 「아파트 주거공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권 3호(2003), 314-328쪽; 정창수·문용갑, 「대도시 주민들의 이웃관계와 그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 서울의 8개 주거지역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韓國社會學』 23집 여름호(1989), 171-189쪽 등.

6) 박상민, 앞의 논문.

밀도의 이웃연결망과 잦은 대면적 접촉을 보여주며, 다른 지역과 달리 남성들의 이웃관계망이 비교적 넓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거주안정성이 높고 거주지역과 경제활동 지역이 겹치는 상황에서 유래한다. 앞에서 언급한 김정오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고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중심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웃관계가 활발한 데다가, 주공혼재 지역이기 때문에 대개의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주로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이웃관계의 틀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에서는 거주 연수가 길수록, 자가소유일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지역 자체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같은 지역 내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인간관계의 범위가 넓고 밀도도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사람들일수록 지역에 대한 애착도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주민들이 이웃과 동질감을 많이 느끼며, 놀이터를 교제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셋째, 아파트의 배치, 층수, 구조에 따라서 이웃과의 교제범위와 교제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sup>8)</sup> 이 연구들을 통해서 건물의 배치와 구조에 따라 공간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이웃과 주로 교제하게 되는지를 발견하고, 이웃관계를 활발하게 하려면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도 많은데, 이 연구와 연관성이 높은 것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아파트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다룬 연구들이다.<sup>9)</sup> 이

7) 진미윤·이유미·김혜란,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의식과 근린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7권 9호(2001), 75-82쪽.

8) 예를 들면, 김현수, 「편복도형 고층아파트 거주민의 이웃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박광재·백혜선·서수정,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주택도시연구원, 2001); 손세옥·최찬환, 「집합주거에 있어서 근린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5호(1992), 103-113쪽; 최재순·이재준,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유공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2권 1호(2004), 111-126쪽 등.

9) 예를 들면, 강순주, 「공동주택의 생활관리 프로그램 개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2권 2호(2001), 55-63쪽; 광도·은난순·하성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12권 2호(2004), 139-160쪽; 천현숙·윤정숙, 『아파트 주거문화의 진단과 대책』(국토연구원, 2001); 하성규·서종균, 「아파트 공동체 운동과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7권 1호(2000), 271-299쪽.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아파트 내 자생단체들의 역할을 통해 아파트의 공동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근린주구 내의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서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와 평가, 그리고 제언을 담은 것들이다.<sup>10)</sup> 대부분은 사례연구인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많은 연구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여가기능이나 주민편의기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복지, 사회교육, 자치활동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이에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지,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집합적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역의 유지들과 단체 대표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지역통합을 위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와 달리 민과 관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양하는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인천 가좌2동의 사례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주민자치센터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11)</sup> 또한 관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혹은 자생적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성 증진에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광명시 하안동의 사례<sup>12)</sup>, 성미산의 사례<sup>13)</sup>, 부산 반송의

10) 예를 들면, 곽현근,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영향요인과 사회심리적 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권 1호(2007), 145-170쪽; 안성수·하종근,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분석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9권 1호(2006), 3-30쪽; 이해경,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개선 방안: 인천 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최숙자, 「도시공동체와 지역주민운동에 관한 연구: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등.

11) 이해경, 위의 논문.

12) 김기현, 「주민자치의 기본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13) 유창복,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2009); 이은희, 「후기 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reflexive dynamics)」,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이주영,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통해 본 지역시민운동: 마포구 '성미산 살리기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사례<sup>14)</sup>, 수원시 구운동 삼환아파트 사례<sup>15)</sup> 등은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인천 가좌2동의 사례와 광명시 하안동의 사례에서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소통과 공동체성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공동체는 “주거단지라는 공간적 장소를 매개체로 하여 공유하면서 거주자들 간의 지속적인 접촉과 공동생활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공동의식과 주거단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진 사회집단”<sup>16)</sup>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지속적 접촉과 공동생활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식과 애착심이 생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한국인들의 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택인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같은 단지 거주자들은 아파트 가격을 유지, 인상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며,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아파트 하자 문제나 관리비 이용 문제 등도 공동으로 대처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거주자들이 같이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계기가 된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접촉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일부 존재한다. 이런 단지들이 펼치는 것으로는 명절에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든가, 축제를 열고,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한다든가, 아이들을 위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공동체적 관계와 의식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행사들은 일회적 혹은 단기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와 행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중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14) 고창권, 『반송사람들』(산지니, 2005); 최숙자, 앞의 논문.

15) 민지선, 「지역주민운동을 통한 아파트공동체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수원시 구운동 삼환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16) 박광재·백혜선·서수정, 앞의 책, 4쪽.

상호 작용이 일어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지만, 일상적으로 공동체적 의식과 관계가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런 면에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면서 서로 만나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집단이 구성되고 활동하면서 그들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도서관 밖으로 까지 확산되기도 할 것이다. 즉, 공동체 형성에 작은도서관은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구들은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와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sup>17)</sup> 이 연구들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부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대신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연구들은 '작은도서관 운동'에 관련된 것들이다.<sup>18)</sup> 작은도서관 운동의 견지에서 작은도서관은 책을 검색, 열람하고, 대출하고 반납하는 도서관일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지속적 접촉과 그를 통한 관계

- 
- 17) 예를 들면, 강수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유양근·박송이, 「작은도서관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권 1호(2010), 175-192쪽; 이윤남,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호 1권(2006), 353-372쪽; 이진우, 「작은도서관의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정현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권(2006), 217-253쪽; 최규명,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최영지,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최준화,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홍미선, 「김해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등.
- 18) 김소희, 「작은도서관운동의 마을만들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박미라·이유봉,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0), 123-131쪽; 양재환, 「마산 지역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과 운동의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권 3호(2008), 27-52쪽; 윤은미, 「커뮤니티 개념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정신희, 「보살핌 공간의 사회적 확장에 관한 연구: N어린이도서관 여성 활동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지역의 문화적 구심점 내지 사랑방 역할이다.

### III.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역사

2012년 2월 17일에 일부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 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편 동법 제2조제4호에서 공공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각 목에서 적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있다. ‘문고’라는 명칭이 줄곧 사용되어오다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명칭이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다.

제5조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봉사 대상 인구가 가장 작은 규모인 2만 미만일 때 공립 공공도서관의 기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약 80평) 이상, 열람석 60개 이상, 기본장서 3,000권 이상, 연간증서 300권 이상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최소한 사서직원 3인을 두어야 한다. 이에 비해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 이상, 열람석 6개 이상,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2005년 전국 등록문고 현황에 따르면 작은도서관(구 문고)은 평균면적 24평, 장서량 약 3,000권, 열람석 수 24석이다. 2008년 마산 지역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면적 31평, 장서 수 약 2,000권, 열람석 수 18개이며, 대전시의 현황은 각각 22평, 3,000권, 25석 정도이다.<sup>19)</sup> 결정적으로 사서직원이 배치된 작은도서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작은도서관 중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면적이나 장서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작은도서관도 사서를 두고 있지는 못하다.

이와 같은 용어의 법적 정의와는 달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작은도서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작은도서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부문에서 시작되었고, 2003년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로 인해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후 2004년 문화관광부가 “문화비전21 : 창의한국”에서 1만 개 작은도서관운동을 제시했고, 2005년 10월 “국립중앙도서관 2010”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6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생겨났다.<sup>20)</sup>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변에서 손쉽게 책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인 ‘작은’ 도서관을 오늘날의 ‘작은도서관’으로 본다면, 이런 작은도서관 건립운동은 오랜 역사가 있다. 그 연원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sup>21)</sup>

일제강점기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일방적 관주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06년 최초로 대한도서관이 설립되었고, 이것은 1925년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변경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선각자들과 민족세력에 의한 대중도서관 설립운동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광복 후 도서관 설립을 지원하고자 1948년부터 ‘도서관후원회’ 등 시민과의 연계를 시도했고, 조선도서관협회(한국도서관협회의 전신)가 결성되었다.

다음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민간 주도 작은도서관운동 형성 시기”이다. 1961년 엄대섭이 ‘농어촌 마을문고보급회’를 처음으로 설립하였으며, 1973년까지 3만 개가 넘는 마을문고가 설립되었다. 1970년 이후

19) 박미라 · 이용봉, 앞의 논문; 양제한, 앞의 논문.

20) 양제한, 위의 논문.

21) 김소희, 앞의 논문, 20-45쪽; 박미라 외, 앞의 논문, 125쪽.

자급난을 겪다가 1980년대 초 새마을운동본부에 흡수되었다. 마을문고운동은 공공도서관이 수적으로 너무 부족한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봉사를 시작했다는 점과 농어촌 마을에 문화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마을문고운동은 사회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심는 첫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뿌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마을문고운동은 새마을운동본부에 흡수되면서 ‘관 주도 계몽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작은도서관운동의 확산 시기”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운동과 함께 주민도서관이나 대중도서관을 표방하는 민간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대표적 예로는, 노동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노동도서관(부산의 ‘노동서원’, 미산의 ‘책사랑’),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드나드는 문화공간의 형태를 지향한 ‘시민도서관(부산의 ‘늘푸른도서관’, 대구의 ‘새벗도서관’), 빈민지역에 설립된 ‘주민도서관(서울의 ‘난곡주민도서관’, ‘책읽는마을’) 등이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생활권 중심지역에 어린이와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 어린이도서관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1994년 ‘작은도서관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당시 작은도서관들은 운영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지자체의 인식 부족, 공공도서관의 지원 결핍 등으로 사재를 털어 운영되고, 지지부진한 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열악한 환경조건과 안정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이나 해당 정부부처로부터 부족한 ‘도서관’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상기한 바와 같이 민간에서 시작한 작은도서관운동에 관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과 문화관광부, 그리고 작은도서관 주체들이 만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으며,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이나 문고 같은 시설 개념이 아닌 운동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다.”<sup>22)</sup>

22) 김준,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도서관계』 3월호(2006).

#### IV. 용인시 작은도서관과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

용인의 지역신문인 용인시민신문(굿모닝용인)에 따르면 용인시에는 120여 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도서관에 등록된 도서관은 2012년 3월 현재 101개이다.<sup>23)</sup> 용인시도서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서관에 도서관 등록신청서를 비롯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한 후 담당자의 현장실사를 거쳐야 한다. 작은도서관 중에 등록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수는 101개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중에 등록하지 않은 도서관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용인시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등록된 도서관에게만 사업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므로 제대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대부분 등록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sup>24)</sup>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00년대 초반에 일기 시작하여 2006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음을 전술하였는데, 용인시와 시립도서관에서도 그 무렵부터 작은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필자가 용인의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작은도서관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라는 단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민신문에 나타난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인시민신문은 용인시의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대신해 지역 곳곳에서 마을문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해오면서 구체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작은도서관의 협의회체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10여 개의 마을문고는 2005년 10월 이후 용인시민신문 주최로 여섯 차례의 모임을 갖고 각각의 운영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연대활동을 시작했다.

23) 용인시도서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자와의 인터뷰.

24) 용인시도서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자에 따르면 등록된 도서관 중에서도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전부 방문했는데, 이용 시간에 문이 닫혀 있거나 신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도서관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물품을 나누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방법들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가기로 했다. 2006년 2월에 가칭 '마을도서관네트워크모임'을 결성하고, 마을 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선도, 범국민적 책읽기 운동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07년 10월 20일에 16개 도서관으로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이하 용도협)가 출범했다.

용도협의 주요 성원들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사립 마을문고들이었다. 건축법상 '커뮤니티시설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적합한 문고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즉, 건설사는 10평 이상의 면적에 열람석 6개 이상, 그리고 장서 1,000권 이상의 문고를 단지 내에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103개에 달하기 때문에 마을문고가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용인시민신문에 따르면 마을도서관네트워크모임의 결성을 논의할 당시 용인 지역 약 50개 사립 마을문고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20여 곳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도서관의 존재나 역할이 크지 않았다.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도서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지역 문화활동의 구심점이 되려는 의지를 가진 일부 작은도서관들이 용도협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 1. 작은도서관의 주요 특징

용인시에 소재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용인시민신문을 중심으로 지역 신문들에 실린 작은도서관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조사할 주요 내용들을 뽑아내었다. 그리고 용도협의 인터넷 카페에 올려진 자료들을 통해 용도협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다음으로 용인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찾아가서 관찰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총 6개의 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중 4개가 용도협 소속 도서관이었다. 그중에는 용도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서관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도서관도 있었다. 그 도서관들의 대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작은도서관 개관

	A도서관	B도서관	C도서관	D도서관	E도서관	F도서관
개관일	2005. 4.	2005. 11.	2006. 4.	2005. 12.	2010. 5.	2009. 9.
면적(평)	80	30	25	50	115	30
장서 수	13,000	10,000	8,000	8,000	6,000	12,000
회원 수 (단지 세대 수)	1,100세대 (1,219세대)	650세대 (300/1,000 세대 이상)	560번 (2011. 2. 이전에는 세대, 이후에는 개인)	600번대 (1,034세대)	230세대 (500세대)	600명 (513세대)
주당 이용 시간	34시간	36시간	30시간	10시간	32시간	25시간
운영자	40명의 자원봉사자	25명의 자원봉사자	20명의 자원봉사자	10명의 성인, 6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	20명의 자원봉사자	1명의 유급 지킴이

2005년에 개관한 도서관이 3개, 나머지는 2006년, 2009년, 2010년에 각각 개관하였다. 2005년 말에서 2006년 초에 ‘마을도서관네트워크모임’이 결성되던 무렵에 용인 지역에 작은도서관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20여 곳에 불과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연구에 포함된 도서관 4곳은 용인시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에 개관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기사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개관일을 확인할 수 있었던 도서관 중에서 2007년 이후로 개관한 것이 2/3 이상이었다.

규모 면에서 보면, 면적상으로는 전술하였던 작은도서관(문고)의 평균에 가까운 도서관이 4개이고 나머지 2개는 이보다 훨씬 크다. 장서 수는 가장 적은 E도서관이 6,000권이고 가장 많은 A도서관은 1만 3,000권에 달한다. E도서관이 개관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보면 모든 도서관이 상당히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장서 확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했던 기준에 비추어보면 장서의 면에서는 공공도서관에 필적한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C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은 단지의 전체 세대 수에 비해 회원 수가 많은 편이다. 작은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층이 유치원생, 초등학교생과 그 엄마들인 것을 고려하면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회원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인터뷰에서도 A도서관이나 B도서관, F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단지나 지역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 이용 시간은 일주일에 5일 내지 6일, 하루에 5-6시간인 도서관이 대부분이며, D도서관은 최근에 들어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이용 시간이 줄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은 F도서관을 제외하면 전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은 주부이다. 전술했듯이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구별되는 점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사서의 존재 여부이다. 공공도서관에는 반드시 3명 이상의 사서가 있어야 되는 반면, 사서가 있는 작은도서관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F도서관의 경우에도 유급 지킴이가 있지만 자격을 갖춘 사서는 아니며, 자원봉사자 모집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파트타임 지킴이를 고용한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관에 이어서 작은도서관이 도시 공동체 형성과 연관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 2. 작은도서관의 개관과정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문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A, B, D, E 도서관은 10평 이상의 면적, 1,000권 이상의 장서라는 문고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공간은 현재의 모습과는 매우 큰 거리가 있고, 그 변화과정에는 도서관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C도서관은 교회의 목사 사택을 개조했고, F도서관은 노인정의 일부를 개조한 것으로서 개관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포함된 것이다.

A도서관은 2003년 8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같은 해 11월에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도서관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소식지 발간, 도서관 운영 실무자 교육을 위한 도서관학교 수강, 예비초등생을 위한 책읽기 교실, 어린이 도깨비 시장 개최(격월), 어른을 위한 동화모임, 마을 식물 알아보기, 아이들 그림 전시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산하기구로 편입하고, 도서관 설립에 대한 주민 동의 얻기, 도서관 이름 짓기 주민 공모 등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한편, 2004년 7월에 마을문고를 임시 개방형식으로 운영했다. 도서관의 공간을 어디에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인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도서관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해 단지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협상을 통해 약 1억원을 지원받아서 80평이라는 넓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2,600권의 도서를 구입했다. 열람실, 자료보수실, 학습과 강의를 할 수 있는 공부방, 안내 데스크 등을 갖추고, 처음 문고를 만들 때 있었던 1,500권, 주민들에게 기증받은 도서, 건설사의 지원금으로 구입한 도서를 합쳐 총 5,000권을 구비하여 개관하였다.

E도서관은 A도서관에 비하면 개관과정이 비교적 순탄했다. 처음 문고로 예정되었던 공간에 어학실습실 용도로 만들어진 공간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도서관의 유아실로 개조했고, 시멘트로 되어 있었던 바닥도 신발을 벗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장판을 깔았다. 장서는 시공사에서 문고를 만들 때 주었던 1,500권이 있었고, 책장 3개, 탁자와 의자 등이 있었다. 처음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3명이 지원을 했고, 개관하는 당일에 10여 명이 더 지원하여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관장을 맡고 있는 E씨는 현재의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 A도서관의 이웃 단지에 살았다. 자신이 살던 단지에도 문고가 있었지만 이용 시간도 짧고 장서도 너무 적어서 이웃에 있는 A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면서 부러워했다고 한다. 그러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하는 데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현재까지 관장직을 맡고 있다. 즉, A도서관의 존재와 원활한 운영이 E도서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E도서관 운영진들은 이웃에 있는 용도협소속 도서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B도서관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7명의 학부모가 모임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개관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은 독서모임을 꾸리면서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자연에서 체험하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근 산책로를 지키기 위한 숲 체험 교실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도서관 개관을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을 지속하면서 학부모 설명회를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결국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도서관 개관 준비에 참여했던 H씨는 “학부모들이 다리품을 팔고, 후원을 받아 일군 도서관 곳곳에 정성이 배어 있다”고 감격해했으며,

초대 관장을 맡았던 P씨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지역문화의 중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sup>25)</sup>

D도서관의 개관과 현재까지의 운영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온 D씨는 2003년 현재의 아파트 단지로 이주한 이후 아이를 위한 도서관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느티나무 도서관에 가보고 매우 감명을 받았지만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이웃 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가보고 D씨는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 아파트 단지에는 문고가 만들어져 있었으나 운영할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작은도서관을 제대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던 D씨는 아파트 주민 10명 정도와 함께 독서동아리를 만들었고, 이들이 도서관 개관의 주역이 되었다.

F도서관의 경우는 좀 독특하다.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고 주도한 사람은 노인회 회장이었다. 도서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F씨는 몇 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도서를 수집했다. 대체로 헌책으로 버려지는 것들을 모으고 기부를 받는 식이었다. 용인시와 경기도로부터 5,000여만 원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개관을 하게 되었다. 공간은 아파트 관리동 1층에 있던 남성용 노인정 자리였다. 운영도 노인회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급기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을 맡기로 하고, 도서관 운영을 전담할 사람을 공모 형식으로 뽑아서 월 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고 있다.

C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 위치상으로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고기리 유원지’로 불리는 지역에 있으며,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많지 않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다는 점도 필자의 연구 대상이었던 다른 도서관들과 달랐다. 교회에 속한 작은도서관이 상당수 있지만 대부분 교인들만 주로 이용하는 데 비해서 C도서관은 교인 이용자가 1/5이 채 되지 않고, 도서관 이용자의 대부분은 고기초등학교(한 학년에 한 학급만 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학교임)를 비롯한 주변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며, 도서관 자체도 어린이도서관이란 명칭을

---

25) 2005년 11월 17일 《용인시민신문》 기사 중에서.

가지고 있다. 고기교회의 목사인 C씨는 교회 근처에 있는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당시에는 초등학교에도 교내 문고가 없었음), 20명 정도의 학부모들과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1년여에 걸친 준비를 하였고, 느티나무재단, 문예진흥원, 아름다운재단, 독지가 등의 도움을 받아서 공간과 장서를 준비했다. 교회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난방비와 전기료 등을 부담하고 있다. 교회 자체가 워낙 작아서 그 부담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6개 도서관의 개관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발적 주도자들과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들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은 문고 형태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그것이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다. 아파트 시공사에서 만든 문고는 법적 최소 기준만 충족할 뿐 도서관으로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장서 면에서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서를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하며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찾아내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활동할 인원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도서관이 개관하는 과정에서 한두 명 혹은 일군의 사람들<sup>26)</sup>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얻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도서관 개관에 가장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E도서관과 같은 사례도 있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D도서관이나 F도서관의 경우에도 최소한 승인 정도의 협조는 했다. 왜냐하면 입주자들의 대의 기관인 대표회의의 협조 없이 도서관의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관과정이나 이후 운영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sup>27)</sup>,

---

26) 이들은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이다.

27) 이 경우 작은도서관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일부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주민 전체가 공유해야 할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은 대개 나이가 많고 도서관의 주 이용층인 어린 자녀가 없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많이 포진해 있을 경우 작은도서관의 개관과 운영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식 채널인 입주자대표회의보다는 주민 다수의 관심과 지지가 더 필요하며, A도서관이나 B도서관의 개관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런데 작은도서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존재는 어린이들(초등학교 저학년까지)과 그 부모들(특히 엄마들)일 것이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주민들 사이에 이웃과 동질감을 많이 느끼며, 놀이터를 교제 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을 위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sup>28)</sup>, 이들이 바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적극적 지지층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아무리 좋은 도서관이 있어도 가까이 있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연령대의 아동들은 아직은 비교적 학교나 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아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 중의 하나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sup>29)</sup> 주민들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필자가 조사한 아파트들은 매매가나 전세가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비교적 젊은 부부들이 많아 지지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sup>30)</sup> 어린이를 가진 엄마들은 도서관 개관뿐만 아니라 운영 면에서도 핵심적 주체임을 다음 절에서 보게 될 것이다.

### 3. 작은도서관의 운영

작은도서관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자발적

---

28) 진미윤 외, 앞의 논문.

29) 필자는 작은도서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혼자서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C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도서관에 책가방을 맡겨놓고 도서관 주변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도서관 지킴이가 챙겨주는 간식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었고(아이들을 위한 간식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도 함), F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언제 학원에 가야 하니까 시간이 되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도서관 지킴이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인터뷰 중에도 엄마들이 방과 후에 집에 있을 수 없을 때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했다.

30)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모이고 결속력이 형성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된 바가 있다. 예를 들면, 김기현, 앞의 논문; 이혜경, 앞의 논문.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 활동이 매우 중요했고, 이것이 도시 내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두 요소인 주민들의 소속감 증진과 긴밀한 인간관계 형성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도서관 운영이라는 부분이 합쳐지면 작은도서관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며, 도서관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절의 목적이다.

### 1) 도서관 이용 패턴

작은도서관들의 주당 이용 시간은 필자가 조사한 6개 도서관의 경우 최장 36시간에서 최단 10시간 사이인데, B도서관과 E도서관이 각각 오전 11시와 10시에 문을 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후 시간대에 문을 열며,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D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열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 주 이용자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과 주부들이 저녁 준비를 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이용 시간을 정한 것이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도서관을 오거나, 아이들이 혼자 도서관을 찾기도 한다. 아이와 엄마가 같이 도서관에 와서 아이는 아동용 책을, 엄마는 성인용 책을 읽기도 하지만, 엄마들이 아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책을 읽어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B도서관과 E도서관이 유아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한 것도 이런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 혹은 친구나 형제와 같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거나 놀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개관 시간 중에 아이들이 혼자서 도서관을 찾는 광경은 종종 목격할 수 있고, 이것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흔한 패턴은 엄마만 도서관에 와서 책을 대출해 가는 것이다. 자신이나 남편이 읽을 책을 대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읽을 책을 대출한다. 도서관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 예는 자녀가 셋인 주부로서, 유아를 안고 오전에 와서 유치원생인 둘째의

책을 빌려가서 읽고 오후에 와서 그 책을 반납하고 4학년인 큰 애 책을 빌려가는 것이다.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런 이용 패턴을 보였다고 한다.

도서관 운영에서 이동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들을 이용자로 포섭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A도서관의 경우 장서 1만 3,000권 중에 약 2/3가 성인용 책이고 금요일에는 오후 10시(평소에는 오후 6시)까지 연장 개관하여 성인들, 특히 직장인들이 도서관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B도서관이나 D도서관도 장서의 1/3 이상은 성인용 도서이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E도서관은 성인용 도서의 수는 많지 않지만, 오후 5시에 문을 닫았다가 수요일에는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다시 문을 연다. F도서관은 장서의 2/3 이상이 성인도서이고, 지킴이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성인의 수도 꽤 된다고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작은도서관들에서 회원증 혹은 대출증을 만든 사람들은 수백 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에 비하면 적다. 하지만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을 매개로 서로 얼굴을 익히고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 특히 신학기가 되면 도서관에서 만난 주부들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얼굴을 익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학교 관련 정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끼리도 그렇지만 도서관 자원봉사자들과 친분을 쌓게 되고 나중에 스스로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도서관 지킴이)들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이다.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 지킴이로 연결되어 운영진의 중심이 되고 그 외에 도서관에 관심이나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합류하게 된다. 특히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같이 겪은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생기기도 한다. A도서관이 1년 여에 걸쳐 개관 준비를 하면서 벌였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D도서관의 경우에도 개관 준비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처음에 시공사에서 문고의 기준에 맞게 마련한 공간은 콘크리트 바닥에 3개의 서가, 1,000권의

책이 전부였다. 거의 2년 동안 죽어 있던 이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살려내기 위해 1년에 걸쳐 준비를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해준 것은 컴퓨터와 도서관리 소프트웨어가 전부였다. 독서모임에서 시작된 도서관 준비 모임에 함께했던 10명 정도의 주부들은 주변에서 버려지는 가구들을 주워서 공간을 채웠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도서를 분류하고 라벨을 만들어 붙이는 일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집안일을 핑개친 채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일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한다. 초창기 자원봉사자 중 한 사람은 남편 직장 때문에 충청도로 이사를 갔는데 아직도 도서관과 연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기자단이 중심이 돼서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도서관에 와서 모임에 참석하고 신문 제작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도서관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후 충원되는 자원봉사자들은 도서관을 열심히 이용하면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되돌려주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봉사자들과 안면이나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어느 정도 도서관에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체계를 익혀야 하고 자신에게 배당된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도서관에 나와 있어야 하며 월례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자신에게 배당된 시간에는 도서관 청소나 정리, 도서의 대출과 반납 외에도 새로 들어온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분류, 라벨 출력과 붙이기 등의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일어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대개 처음에는 자녀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거의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맺었던 인간관계의 지속이라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런 관계는 도서관 밖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A도서관의 A씨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 혹은 그중 일부가 뭉쳐서 한지공예도 같이하고 비누 만들기도 하며, 미술도 하고 플루트도 배우러 다닌다. B도서관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중국어를

배우고 등산을 가기도 한다. 이런 사정은 다른 도서관들도 비슷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서관을 시작하고 운영해나가는 데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며, 이것이 작은도서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일 것이다. 문헌정보학 전공자나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먼저 개관한 도서관이나 용도협, 용인시도서관의 도움을 받아<sup>31)</sup> 도서를 분류하고 라벨을 만들고 붙여서 정리하는 등 도서관 운영 노하우를 익히면서 도서관을 운영해나간다.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도록 힘을 보탬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긴밀한 관계로 엮여 있는 자원봉사자 집단은 도서관 운영 면에서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열정과 노력이 있고, 그 점이 바로 작은도서관의 힘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필자와 인터뷰를 한 B도서관 관장인 B씨는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양가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만약 예산이 허락한다면 도서관에 상근하는 전문 사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급기야 사라질지도 모르고 작은도서관의 존재 의의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

## 2)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에 찾아와서 책을 읽고 대출하고 반납하는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외에 작은도서관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도서관 이용자를

---

31) 용인시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펼치는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조성지원사업: 물리적 시설 확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나 경기도와 시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2009년부터. 공공성 결여). 단, 공공성을 확보해서 10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곳은 지원 대상이 됨.

② 운영지원사업: 시설이나 운영비를 제외하고 책이나 서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평균 10군데 정도 지원했고, 작년과 올해에는 20여 군데 지원. 작년에는 한 도서관당 500만 원씩, 올해에는 등급에 따라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올해에는 작년에 지원받지 못한 도서관 우선 지원 계획.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경우 곤란한 문제는 도서관에 직접 보조금을 줄 수 없고, 임대위를 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도서관과 임대위는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음.

③ 인력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순회사서 제도. 한 사서가 몇 군데를 순회하면서 교육이나 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

여기서 용인시도서관의 도움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인력지원사업으로서, 순회사서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전에 잘못되었던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도서관에서 들을 수 있었다.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동화책(영어 동화책을 포함하여) 읽어주기, 영상동화 상영, 자원봉사자 야유회, 영화상영, 여름캠프, 다양한 배움 프로그램이 있다. 1명의 유급 지킴이가 도서관 운영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F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도서관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영화상영이다. 가족(주로 아이와 엄마)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하여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도서관에서 상영하는데, 평소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람하고, 아빠들의 참여는 매우 적다. 영상동화란 그림책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레이션과 더불어 빔 프로젝트로 상영하는 것인데, A, B, C, D 도서관에서 현재도 하고 있거나 이전에 했었다. 영상동화를 제작하는 작업은 자원봉사자(지킴이)들이 배워서 하기도 하지만, 편집·낭독·상영 등은 아이들에게 맡겨서 하기도 한다(C도서관). 생태체험, 천문캠프, 평화교육 등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이루어지고,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종이접기, 책 만들기 등을 가르치기도 한다. 용도협 주최로 매년 인형극 축제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참여한 것을 계기로 C도서관에서는 매년 학기 초에 인형극단을 조직해서 스토리 만들기, 인형 제작, 공연 연습 등을 몇 개월에 걸쳐 진행하기도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들도 있다. 영화상영의 경우 A도서관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평일 오전에 성인용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 그 외 한자공예, 비누공예, 리본공예,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가지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 내 동아리처럼 엄마들의 독서모임(성인용 도서, 아동용 도서 포함)도 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주로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참여한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도서관이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이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봉사점수를 따야 하는데, 작은도서관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작은도서관에서 봉사료 점수를 딸 수 있게 되었다. 방학 때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바자회를 들 수 있다. A도서관은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격월로 도깨비 시장을 열었다. 도깨비 시장은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물건에 스스로 값을 매겨 팔고 어른들은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장터를 여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판매수익금의 10%를 자발적으로 도서관기금 후원금으로 내놓음으로써 아주 적지만 도서관에 대한 실질적 도움도 되고 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일조를 했다. A도서관은 지금도 일 년에 두 차례 도깨비 시장을 열고 있다. D도서관도 도서관기금과 도서관 책장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열었으며, 이 경우에도 A도서관의 도깨비 시장과 비슷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C도서관은 매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래 교회에서 개최하던 것을 이어받아 지역의 아마추어 음악가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고 있다. 2011년에는 음악회를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치약, 비누, 수건, 샴푸 등 생필품을 가져오도록 해서 지역에 있는 고아원에 기증했다. 또한 A도서관에서는 부녀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마을대청소나 김장하기 등에 인력지원을 하기도 한다.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화적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프로그램 참가자의 대부분이 도서관 이용자, 특히 아동들이라는 점은 문화적 구심점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지역에 다른 문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지역주민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에 그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오히려 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주민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프로그램의 기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폭넓게 수렴하는지 등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운영진의 딜레마도 작지 않은 것 같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타 기관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한 장소로 도서관이 이용되는 것은 작은도서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실비만 받는 자원봉사자 혹은 지역주민으로 진행자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 섭외, 참여자 모집 등의 활동도 도서관 운영을 전담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본적 업무 수행도 버거운 상황에서 다른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점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는 데에도 커다란 한계가 된다.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서 작은도서관 운동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만한 희생을 감수하기 쉽지 않다. 용도협회의 기본 입장이 지역공동체 운동이라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일부 작은도서관들이 상대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라는 틀을 벗어난 지역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인 편이다.

## V. 맺음말

용인시는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가 지배적 주거형태로서 현대 한국 도시의 원자화된 인간관계를 잘 나타내는 지역이다. 2000년대 초반에 사회적으로 불기 시작한 작은도서관운동은 이러한 원자화된 인간관계를 뭉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건축법에 따라 최근 건립된 아파트 단지에는 문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문고들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한 많은 사례들을 용인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도서관들 중에 작은도서관운동의 맥락에서 설립되거나 그와 유사한 정신으로 운영되는 것들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결핍된 도서관의 역할에만 충실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만든다. 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긴밀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계기를 작은도서관이 제공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을 매개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거미줄 모양에 가까운 연망(network)을 형성한다. 즉, 중심부에는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집단이 위치한다. 이들은 도서관의 개관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들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월례회의, 워크숍이나 야유회 등을 통해서 잦은 접촉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유지한

다. 도서관의 개관 준비와 운영 과정에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없었던 F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망의 중간 부분에는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이 위치한다. 도서관의 열람과 대출,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은 서로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해간다. 도서관 이용빈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서로 간의 관계가 긴밀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원봉사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도서관 이용을 통해 가까워진 사람들이 도서관 밖에서의 활동들,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봉사, 취미활동 등을 함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도서관 운영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연구의 6개 사례 도서관에서 이러한 관계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F도서관의 경우 자원봉사자 집단이 존재하지 않아 이용자들 사이의 관계 역시 느슨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데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과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독서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A, C, D 도서관 같은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중심부와 큰 차이 없이 연망이 연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간 부분의 관계가 조밀하다.

연망의 외곽에는 작은도서관 외부의 지역주민이 위치한다. 도서관의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집단으로 C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 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체로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맺고 있다. 대부분의 대표가 도서관 이용을 비교적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E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장을 겸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해 호의적인 F도서관의 경우에는 긴장의 정도가 덜하지만, 나머지는 양면적 성격이 강하다. C도서관은 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목사가 작은도서관의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긴장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계들은 도서관 중심의 연망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연망의 중심과 중간 부분에서 연결되는, 그러나 도서관 이용은 잘 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연망 외곽에 자리잡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바자회나 음악회,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주관 활동에 대한 참가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증대시키고 도서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해온 A, C, D 도서관이 비교적 튼튼한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역 내 인간관계를 위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연망으로 보았을 때, 자원봉사자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퍼져나가는 연망이 중간 부분과 외곽의 지역사회에까지 잘 연결된 사례는 A도서관인 것 같다.<sup>32)</sup> B도서관은 연망의 중심과 중간은 튼튼하게 형성된 반면, 외곽 부분은 느슨한 것 같으며, E도서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D도서관은 중심 부분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 도서관 이용 시간이 주당 10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중심 부분이 튼튼하게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며, 이 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상황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D도서관은 개관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직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서모임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망의 중심 부분이 다시 확대되고 튼튼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도서관의 운영방향에 대한 합의가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용도협의 설립 회원이었고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에 운영진에 합류한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지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B도서관도 용도협의 초창기 회원이지만 용도협에서 지향하는 활동보다는 도서관으로서의 일상적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방향 설정이 자원봉사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망의 중심부는 잘 형성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외곽이 허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F도서관은 고용된 직원 1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의 운영에는 충실하지만, 앞의 두 사례와 달리 도서관을 매개로 하는 연망에서 중심 부분과 외곽 부분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도서관 이용자들 사이의 연망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도서관의 특징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연결되고 뻗어나가는 인간관계의 연망이 형성되어 있다. 이 연망은 현대 한국의 도시에서

32) C도서관도 연망은 잘 형성되어 있으나, 분명한 경계가 있는 지역을 설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연구의 주제인 지역공동체 형성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핵심 요소인 지역 내 긴밀한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형성의 문화적 구심점을 자처하든 그렇지 않든 작은도서관의 성격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성희,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과 역할」. 『한국보육학회지』 8권 2호, 2008, 11-30쪽.
- 강수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강순주, 「공동주택의 생활관리 프로그램 개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2권 2호, 2001, 55-63쪽.
- 고창권, 『반송사람들』. 산지니, 2005.
- 곽도·은난순·하서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12권 2호, 2004, 139-160쪽.
- 곽현근,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영향요인과 사회심리적 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권 1호, 2007, 145-170쪽.
- 김기현,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소희, 「작은도서관운동의 마을만들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정오, 「한국 도시사회의 공동체적 관계망과 유대: 부산의 중하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종인·신용재, 「아파트 주부의 이웃관계: 생활수준에 의한 비교를 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論文集』 5권 1호, 1989, 15-19쪽.
- 김준,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도서관계』 3월호, 2006.
- 김현수, 「편복도형 고층아파트 거주민의 이웃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민지선, 「지역주민운동을 통한 아파트공동체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수원시 구운동 삼환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광재·백혜선·서수정,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연구』. 주택도시연구원, 2001.
- 박미라·이용봉,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 123-131쪽.
- 박상민, 「노원2가동 주민들의 이웃 연결망과 이웃관계」. 『地理學論究』 19권, 1999, 116-131쪽.
- 손세욱·최찬환, 「집합주거에 있어서 근린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5호, 1992, 103-113쪽.
- 안성수·하종근,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분석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창원시 사례를

-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9권 1호, 2006, 3-30쪽.
- 양재한, 「미산 지역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과 운동의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권 3호, 2008, 27-52쪽.
- 유양근·박송이, 「작은도서관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권 1호, 2010, 175-192쪽.
- 유창복,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윤은미, 「커뮤니티 개념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시재 외, 『일본의 도시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이용남,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호 1권, 2006, 353-372쪽.
- 이은희, 「후기 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reflexive dynamics)」.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주영,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통해 본 지역시민운동: 마포구 '성미산 살리기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진우, 「작은도서관의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혜경,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개선 방안: 인천 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임석희·이철우·전형수, 「아파트 주거공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호 3권, 2003, 314-328쪽.
- 정신희, 「보살핌 공간의 사회적 확장에 관한 연구: N어린이도서관 여성 활동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정재은, 「아파트 주거공동체를 통해서 본 상층계급의 사회자본 축적과정: 방배동 L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창수·문용갑, 「대도시 주민들의 이웃관계와 그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 서울의 8개 주거지역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韓國社會學』 23권, 1989, 171-189쪽.
- 정현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권, 2006, 217-253쪽.
- 진미윤·이유미·김혜란,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의식과 근린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7권 9호, 2001, 75-82쪽.
- 천현숙·윤정숙, 『아파트 주거문화의 진단과 대책』. 국토연구원, 2001.
- 최규명,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숙자, 「도시공동체와 지역주민운동에 관한 연구: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영지,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재순·이재준,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유공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2권 1호, 2004, 111-126쪽.
- 최준화,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현대계와 발전전략: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하성규·서종균, 「아파트 공동체운동과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7권  
1호, 2000, 271-299쪽.
- 홍미선, 「김해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황익주, 「골목길과 광장 및 공원: 도시에서의 '우리 동네' 형성에 관한 인류학적 에세이」.  
『건축』 49권 1호, 2005, 69-76쪽.
- \_\_\_\_\_, 「도시의 공간성과 지역공동체」. 『한국가족관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 논문  
집』, 2007, 1-21쪽.
- Bestor, Theodore, *Neighborhood Tokyo*.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 국 문 요약

현대 한국의 도시에서 주거, 교육, 복지, 교통,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소외감에 직면한 주민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그중 하나가 공동체 형성이다. 즉, 그들은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집단적 행위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적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소외감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의 도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살아가는 근린주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다루고자 한다. 이때 지역공동체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접촉빈도와 인간관계일 것이다. 이 연구는 용인시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이 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으며 또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도서관의 특징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연결되고 뻗어나가는 인간관계의 연망이 작은도서관을 매개로 형성된다. 이 연망은 현대 한국의 도시에서 지역공동체가 작은 도서관을 매개로 형성되는 데 핵심적 요소인 지역 내 긴밀한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도시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투고일 2012. 4. 30.

수정일 2012. 5. 10.

게재 확정일 2012. 5. 17.

주제어(keyword)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작은도서관(small library), 사회적 연망(social network), 자원봉사자(volunteer), 도서관 이용자(library user), 지역주민(local resident)

